

에이치플러스 양지 ‘위암수술 1등급 병원’ 선정

개인종합병원 유일...내시경 경험 풍부
상급종합병원보다 저렴한 진료비 장점

“위암? 꼭 대형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암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가운데 위암 분야에서 한 개인종합병원이 대형병원을 능가하는 의료실력을 인정받아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개인종합병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하 양지병원·원장 김상일)이다.

●양지병원 위암 수술 평가 1등급...개인종합병원으로 유일

양지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위암 1차 적정성 평가’에서 위암수술(내시경절제술, 위절제술 포함) 전체 종합점수에서 1등급을 받았다. 조상대상 기관 201곳 중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아님에도 1등급을 받은 곳은 개인종합병원으로는 서울에서 유일하다. 또 진료비도 종합병원보다 가성비가 높아 적은 비용으로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조사됐다.

개인종합병원인 양지병원이 위암 분야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체계적 검진시스템과 진료과목 확대, 최신기술 보유 등 상급종합병원 못지않은 장비와 실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종합건강진센터와 신속한 연계 시스템 구축

양지병원 특화진료부문인 소화기병센터는 2010~2015년 15만건의 위·대장 치료 내시경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만 약 3만건의 소화기 내시경을 시행했다. 이는 국내 종합병원 전체를 통틀어 최고수준이다.

2차 의료기관임에도 소화기 분야에서 이처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위암수술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의료진들이 위암 치료 내시경 수술을 하고 있다. 대형병원이 아닌 개인종합병원이 위암수술 1등급을 받은 것은 서울에선 처음이다. 이는 체계적인 검진시스템과 최신 의료기술을 갖춘 덕이다.

사진제공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럼 독보적 내시경 실적을 쌓게 된 것은 종합건강진센터와의 신속한 연계 시스템 덕분이다. 검진 결과를 상담하는 당일, 질병이 확인되면 혈액종양내과, 일반외과, 소화기내과, 영상의학과, 진단병리과 등이 협진해 적합한 치료 방향을 논의한 후 그 자리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치료 전략을 수립한다.

소화기병센터 박재석 센터장은 “검진 통해 조기 발견된 위암은 외과적 절개수술 없이 내시경에 달린 도구로 병변 아래 점막을 사과껍질 깎듯이 제거하는 내시경점막하박리술(ESD)로 시행하는데 시술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생존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첨단장비 도입으로 암 조기발견 인프라 구축

이 같은 협진시스템 외 상급종합병원 못지않은 실력을 갖춘 것도 한몫했다. 양지병원은 대학병원급 하드웨어 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해 최신 내시경 및 초음파 장비 도입, 최첨단 PET-CT, 혈관조영장비, MRI, SPECT 등 고가 최신장비를 대거 설치해 암을 조기 발견하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특히 치료내시경 기술력은 해외서도 인정받고 있다. 2014년 체코 치료내시경 권위자인 온드르제이 우르반 박사와 인도 소화기내과 A. S. 푸리 박사가 병원을 방문하여 심포지엄과 소화기 치료내시경 시연을 펼치기도 했다. 몽골 울란바토르소재 종합병원에서도 소

화기병센터에 매년 의료진을 파견하고 있다.

양지병원은 이번 위암 적정성 평가 이전에도, 우수내시경실 인증 획득(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유소아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 1등급(심평원), 최우수 지역응급의료기관 선정(보건복지부) 등 각 기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상일 원장은 “이번 위암 적정성 평가 1등급에 만족하지 않고 의료의 질 향상과 진료서비스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적절한 진료 외 환자에게 필요한 맞춤의료를 찾고 마음으로 다가가는 공감진료의 대표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재호 기자 sol@donga.com

종근당 주가 60.8% 경중

작년 말 9042억원서 1조4537억원으로 1
다국적제약사 품목 공동판매 계약 등 호재

이번엔 종근당이다.

지난해 ‘핫 제약기업’이 글로벌 제약회사와 8조 원 규모의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해 적잖은 한미약품이었다면 올해는 종근당이 될 듯하다.

실제 종근당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9042억원에서 60.8% 증가한 1조4537억원(8일 기준)으로 급등했다. 종근당의 상승세에 맞물려 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10.4%)와 계열사 종근당바이오(2.0%)도 동반 상승했다.

종근당의 주가가 수직상승한 것은 최근 빈혈치료제 바이오시밀라의 해외 기술수출 계약 소식과 다국적 제약사의 대형품목 5종에 대한 공동판매 계약 등의 호재 덕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종근당뿐만 아니라 연초부터 국내 상장 제약사들의 시가총액도 꺾박질을 하고 있다. 보건 의료 분석평가 전문사이트인 팜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87개 상장 제약사(바이오·원료약품·지주회사 포함)의 시가총액(8일)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해 12월30일(64조9334억원) 대비 11.8% 늘어난 72조5859억원에 달했다. 분석대상 87곳 중 77곳(88.5%)의 시가총액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시가총액 증가율 118.9%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올랐던 상반기 말과 비교해도 3조 957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 기간 시가총액은 68조 6289억원을 기록했다. 대표주자인 종근당 외도 녹십자(36.3%), 오스코텍(35.4%), 슈배생명과학(31.8%), 제일약품(29.5%), 동아쏘시오홀딩스(22.7%), 대웅제약(20.4%), 에스티파마(19.1%), JW 중외제약(19.0%), 녹십자홀딩스(16.3%)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연재호 기자 sol@donga.com

광동제약 “스피드 경영 통한 비전 2020 가속화”

광동제약(대표 최정원)이 올해 스피드 경영을 통해 비전2020을 가속화한다. 광동제약은 8일 사무실을 겸한 신년 워크숍을 갖고, 2016년 목표와 실천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최정원 대표는 “올해는 빠른 의사결정과 선제적 혁신전략을 통해 비전 2020을 더 빠르고, 압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내부 구조를 재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동제약은 2016년 경영방침을 ‘스피드 경영을 통한 비전 2020 가속화’로 정했다. 그에 따른 실천과제로 ▲핵심사업의 차별적 경쟁역량 극대화 ▲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신규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핵심가치 기반의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구축 등을 제시했다.

스틸라 ‘아쿠아 글로우 세럼 파운데이션’ 출시

런웨이 감성 프로페셔널 메이크업 브랜드 스틸라가 11일 ‘아쿠아 글로우 세럼 파운데이션’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올 스킨 메이크업 트렌드인 ‘스킨 글로우’를 연출하는 제품으로, 과한 윤광이나 물광이 아닌 본래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 듯 건강한 윤기를 표현하도록 도와준다. 이밖에 ‘스테이 올데이 리퀴드 립스틱’ 5종도 함께 출시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일자목 증후군, 방치하면 ‘목디스크’ 위험

고정된 자세로 오랜 시간 작업 원인

거북목 혹은 일자목 증후군은 C자형의 커브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할 목뼈가 일자 형태로 변형된 것을 말한다. 일자로 변형된 목은 충격 완화 능력이 떨어져 쉽게 충격을 받거나 목디스크와 같은 퇴행성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일자목은 주로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시 고정된 자세로 오랜 시간 작업을 하거나 휴식 없이 무리하게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 나타난다. 모니터의 위치가 눈높이보다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마

우스 조작 시 팔의 각도가 맞지 않거나 키보드의 방향이나 높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일자목의 증상은 대개 근육 뭉침과 통증으로 나타나는데, 목과 어깨가 뻣뻣하고 결리며 두통, 어지럼증, 안구충혈과 같은 증상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자목을 방치해 이미 목디스크로 발전했다면 만성 목통증 뿐 만 아니라, 팔저림, 손가락마비 증상으로 나타난다. 악화될 경우 등 통증, 하반신 마비 등 2차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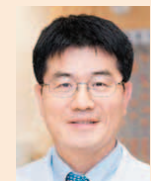
목디스크의 증상이 크지 않다면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목디스크 환자들은 대부분 수술치료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척추질환이라고 해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도 수술이 필요한 디스크질환은 10건 가운데 1~2건 정도로 대부분이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목디스크 치료엔 최근 경막외신경성형술이 각광받고 있다. 경막외신경성형술은 부분 마취상태에서 미세절개 통해 지름 2mm 크기의 특수 카테터를 삽입해 치료가 진행된다. 이렇게 삽입된 주사바늘이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때문에 증상 완화에 큰 효과가 있다. 이러한 치료는

단순히 목디스크 뿐 아니라 일자목과 같은 척추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효과적이다. 또 30분 내의 짧은 시술시간만으로 진행되며 당일 퇴원 또한 가능하다.

일자목, 목디스크와 같은 척추질환은 이 같은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평소 올바른 생활습관과 자세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모니터를 눈높이에 맞추어 조절하고, 마우스를 사용할 때도 양손을 책상에 올려 작업하고 컴퓨터 작업 중간 중간 스트레칭하는 것이 목디스크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이다.

강남베드로병원 신경외과 윤강준 원장



sizer 시저

특허받은 남성 기능성 건강팬티
www.sizer.kr

당신도 모르는 사이 **사타구니**를 긁고 계시지 않아요?

남성은 신체조건상 음낭과 음경으로 나뉘어지는데 음낭의 아래 사타구니 주변은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다습하며 스며들기(방성남성분비물)등 곰팡이성 유해세균 등이 서식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된다.

시저! 남성의 중요한 부분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

남성의 사타구니가 습하거나 가려우면 성관계시 여성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이 처럼 남성 실 청결은 여성의 건강과도 직결 된다. 또한 좋은 팬티를 고르는 기준이라 하면 피부에 닿는 촉감이 부드럽고 가벼우며 끈끈함 없이 보송보송하고 산뜻해야 한다. 남성 기능성 팬티 '시저'는 사타구니, 고환, 음경을 3단 분리하여 땀이 덜 차고 보송하게 유지해 준다. 골프, 등산, 조깅 등 활동량이 많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종일 앉아 있는 사무직 직장인 등 모든 남성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시저를 입으면, 남자의 자존심이 살아난다.

쇼핑몰 : www.sizer.kr
문의전화 : 1577-5579

한 손으로 편안하게 주머니형 디자인

팬티 앞면의 주머니 덮개는 소변을 볼 때 허리 밴드를 내리지 않아도 되는 디자인으로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받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편안하게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남성을 위한 3단 분리 디자인

예로부터 남성의 고향을 차갑게 해야 정력에 좋다 하였습니다. 정자를 생산하려면 고향의 온도가 체온보다 2~3도 정도 낮아야 합니다. 남성 기능성 건강팬티 시저는 **사타구니와 고환, 고환과 음경, 음경과 하복부**가 확실하게 3단 분리되는 디자인으로 통기가 우수하여 땀이 덜 차고 온도 조절 능력이 뛰어난 기능성 팬티입니다.



항균, 항습, 항취 ATB-100

물을 빨리 흡수하고 배출해 습기로 인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여 뛰어난 항균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ATB-100원단에는 은사까지 함유되어 높은 항균성을 지니며 여러번 세탁해도 항균력이 떨어지지 않는 기능성원단입니다.



특허받은 팬티 시저

본 발명은 남성의 음경과 음낭이 각각 격리됨으로써, 땀에 의한 불편함이 해소되어 남성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발명특허 제 10-1212608호



시저골드 SIZERGOLD



시저레몬 SIZERLEMON



시저실버 SIZERSILVER



시저네비 SIZERNAVY



시저블루 SIZERBLUE



시저와인 SIZERWINE



시저레드 SIZERRED



시저지브라 SIZERZEBRA



시저웨이브 SIZERWAVE



시저웨이브스카이 SIZERWAVES